

여성주의 아나키즘

Anarcha-Feminism



# 여성주의 아나키즘

Anarcha-Feminism

## 차례

여성주의 아나키즘 서문 1쪽

우리는 누구인가 - 여성주의 아나키즘 선언 4쪽

여성주의 아나키즘의 일반이론을 위하여 6쪽

반항할 때 행복하다 - 볼리비아 여성주의 아나키스트 그룹

무헤레스 크레안도 Mujeres Creando 11쪽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방법 17쪽

아나키즘과 청소년 해방 21쪽

# 여성주의 아나키즘 서문

- 캐럴 얼리치 Carol Ehrlich, 하워드 J. 얼리치 Howard J. Ehrlich



사회적 아나키즘과 진본적(急進拔本的,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radical) 여성주의에 밝은 사람들은 이 두 사상이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에 항상 놀라게 된다. 두 사상 모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제도화된 권력관계에 뿌리박혀 있다고 본다. 두 사상은 해방을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이런 권력관계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두 사상은 모두 공생적 삶과 노동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동시대의 사회적 아나키즘의 저작들이 진본적 여성주의와의 상호연관성을 탐구할 것이며 여성 해방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대 아나키즘 저작의 대다수가 남성들에 의해 씌어지긴 했지만 남성 아나키스트들이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우리 시대의 사회악에 성차별주의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저작들이 성차별에서 비롯되는 억압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악이고, 일상생활은 끔찍함 그 자체이며,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는 자유의 적이라고 항상 말해지지만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보통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참고서적 목록에 엠마 골드만의 저작들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런 결점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짧게 말해 아나키즘과 여성주의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해온 것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들이었

다. 지난 몇 년간 여성주의자이기도 한 여성 아나키스트들은 진본적 여성주의의 원칙과 실천들을 결합시킨 사회적 아나키즘을 새롭게 짜내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 책에 실린 글들과 선언문은 공통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들은 먼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진본적 여성주의의 원칙이 진실임을 확인한다. 정치는 협소하게 정의된 몇몇 사건들의 집합을 훨씬 넘어선다. 정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해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젠더를 근거로 인간을 구별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며, 비슷한 경험이라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젠더를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이 우월함/ 열등함의 위치에 놓이는 사회에서 삶의 경험과 그 경험이 갖는 의미는 하나의 집단(예를 들면 여성)을 다른 집단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률, 정부, 교육, 과학, 예술, 노동, 놀이, 생활조건, 언어, 감정 표현, 패션, 섹스 등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모두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항상 그렇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물론 많은 남성 아나키스트들도 사회화의 중요성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역할, 전통적 가족제도의 성적 억압, 권위적 사회에서 감정의 표현과 능력의 계발을 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란 또 다른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오긴 했다. 하지만 남성 아나키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여성의 지위까지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일을 해온 것은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이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다루는 또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지배 권력과 권위와 위계를 제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나키즘과 진본적 여성주의의 핵심에 놓인 사상이다. 아나키즘과 여성주의의 연관이 이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국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합법적’ 권력과 권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진본적 여성주의는 가부장제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가부장제는 물리력을 통해, 그리고 남성의 권위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게끔 만듦으로써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에게 국가와 가부장제는 악의 쌍둥이인 셈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파괴하는 것은 제도화된 가부장제의 가장 주요한 축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가부장제를 철폐하는 것은 현존하는 국가를 철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국가는 그 본질에서부터 불합리한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급진 여성주의자들보다 진일보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이 현재의 남성 국가를 여성 국가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억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국가의 지배는 불의와 불공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악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한다. 아나키즘이야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조직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도 아나키스트들이기에 지배 권력과 권위와 위계를 제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때 구조가 요구된다는 쓰디쓴 교훈을 알고 있다. 또한 이 구조는 매우 조심스럽게 설계되고 제대로 배양되어야 조직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만이 비공식적인 엘리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진본적 여성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공유하는 세 번째 주제는 모든 각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 이것은 진부한 주장이 되어버렸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맑스주의자들, 탈정치적인 도피자들, 그리고 심지어 좌파 자유주의자들조차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개념은 진본적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뒤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가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활동가 지향적이다.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협동과 상호부조 속에 자율성을 지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본적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대안언론, 보건단체, 인쇄조합, 주거 공동체, 대안학교, 이윤에 반대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밖에 다른 많은 단체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이뤄왔다.

진본적 여성주의 모임이 조직되는 것을 보면 보통 아나키적 원칙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페기 코네거Peggy Kornegger가 ‘아나키즘, 여성주의와 연관성(Anarchism: The Feminist Connection)’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는 보통 직관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직관은 의식적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아나키즘과 진본적 여성주의를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원래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맑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전유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권위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차별주의에 간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남성들에게 아나키즘을 양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페기 코네거의 대답은 이렇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혁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끝)

\* 이 글의 원문은 캐럴 얼리치, 하워드 J. 얼리치 등이 편집한 Reinventing Anarchy (1979년 Routledge & K. Paul 출간)에 실려 있습니다. 번역 - 조약골

## 우리는 누구인가: 여성주의 아나키즘 선언



자유를 이성을 품은 과격주의에 이 선언을 바친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현재 시점에서 아나키 여성주의야말로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진본적(急進拔本的,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radical) 입장이라고 여긴다. 이는 맑스주의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발본적이다.

여성의 혁명운동은 남성지배의 권력구조가 가진 모든 흔적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괴해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권력구조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파괴의 대상이며, 국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대국가에서부터 있었던 비참한 국가기구들, 즉 감옥, 군대 그리고 세금이라는 강탈도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그리고 국내에서부터 국외에 이르기까지 민중의 개인적 삶과 자유롭게 협동하려는 모든 시도를 간섭하는, 괴상하면서도 억압적인 법치와 군사작전도 모두 사라져야 한다.

스스로를 정부라 자칭하는 무장한 남성 폭력배들이 다스리는 세계는 분명히 수십 년 뒤에는 지금처럼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니며, 심지어는 세상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 어떤 형태로 정당화하든 간에 무장한 국가야말로 현재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다. 국가는 그 고유한 본질 자체가 개혁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진정한 사회주의와 평화 그리고 풍부함은 민중들 스스로만이 이뤄낼 수 있다. 우리를 ‘대표한다는 자들’, 특히 국가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들이댈 수 있고, 언제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대신 이뤄주지 않는다. 이런 병적인 국가기구들에 반대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국가기구들이 시들어버리도록 그보다 더 무성하게 자

라나는 것(outgrow)이다. 그것을 전복(overthrow)하기보다는 말이다. 이 과정은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민중들 사이에서 교육과 의사소통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는 것을 함의한다. 교회나 합법적 가족 같은 남성이 고안한 억압적 체제에 마침내 여성의 지성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제 남성지배의 최후의 보루, 즉 국가가 가진 가치를 다시 매기기 위해 여성의 지성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라는 서로 적대적인 체제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의 해악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모든 국가체제를 포괄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이 개념은 다가올 '사회주의 자매애(Socialist Sisterhood)' 라는 이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만약 인류에게 진실로 미래라는 것이 있다면 인류의 미래에는 사회주의 자매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버리는 것에 반대한다. 맑스 이전의 사회주의는 많은 ана키스트 사상가들이 ана키즘과 동의어로 사용해 온 것이다. ана키즘의 동의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절대자유 사회주의(libertarian socialism)인데, 이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권위적 사회주의 등의 변종들과 반대된다. 그리스어 '아나르코스(anarchos)' 즉 지배자가 없다는 것에서 유래한 ана키즘은, 지배를 부정하고 경계한다는 뜻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긍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인간도 힘이나 위협으로 다른 인간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ана키즘은 인간이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와 달리 사회주의는 인간이 할 수 있고 함께 건설해야만 하는 멋진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인간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이성 그리고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협동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활동하는 맑스주의자 자매들과 세상의 모든 자매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들과의 건설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시대에 뒤쳐져 있거나 여성의 안녕을 위해 별 관련이 없거나 적대적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정치를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자 희망한다. 필요할 경우 우리들 자신이 미리 가정해놓은 생각도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끝)

\* 이 글은 미국 시카고에서 1971년 발행된 아나키 여성주의 저널 '사이렌Siren'의 편집자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번역 - 조약골

# 여성주의 아나키즘의 일반이론을 위하여

- 하워드 J. 얼리치



사회적 아나키즘과 진본적(急進拔本的,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radical) 여성주의에 밝은 사람들은 이 두 사상이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에 항상 놀라게 된다. 두 사상 모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제도화된 권력관계에 뿌리박혀 있다고 본다. 두 사상은 해방을 위한 사전 조건으로서 이런 권력관계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두 사상은 모두 공생적 삶과 노동의 맥락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쓴 사람들은 일레인 리더Elaine Leeder, L. 수전 브라운L. Susan Brown, 페기 코네거Peggy Kornegger, 캐럴 얼리치Carol Ehrlich, 닐라 슬레우닝Neala Schleuning, 그리고 제인 메얼딩Jane Meyerding 같은 작가들인데, 이들의 글은 특별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룬다. 아나키 여성주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이들은 각자 여성주의 아나키즘과 여성주의의 다양한 입장이 갖는 차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 이론의 기본적 입장들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어떤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모든 여성주의 이론은 사회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일군의 관찰로부터 시작한다. 아래의 세 문장은 여성주의의 핵심적 이론을 나타낸다.

1.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은 근본적으로는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2. 여성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 -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3. 여성은 육체적으로 대상화되며, 그 결과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리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다음을 진실이라고 확인해야만 했다.

#### 4.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확인하는 방식은 현존하는 권력구조에 개혁을 가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차별, 즉 제도화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여성들의 문화나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에 관한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적은 권력의 원천을 얻는데 있어서 평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들 사이에 현존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놓고 갈라졌다. 사회계급, 민족 그리고 피부색의 문제에서 특히 그러했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이와 같은 분열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힘든 과제였다.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힘든 문제임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이를 중요한 현안으로 인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여성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분열을 권력투쟁에 따른 것으로 바라봤다. 여전히 그렇기도 하지만 주로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계급과 민족 그리고 인종문제 같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성운동에 반영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통합적인 운동을 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을 포함한 진본적 여성주의의 다양한 입장들 가운데 이 이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테제가 있다. 근본적인 관점의 중심에 놓인 것은 수단과 목적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고집이다. 그 일관성은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유지된다.

#### 5.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는 정부기구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아놓은 협소한 집합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정

의된다. 정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모든 해석을 포괄한다.

문화는 젠더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범위의 경험을 하게 된다. 비슷한 경험일지라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은 서로 구별되는 하위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여성주의 이론의 또 한 가지 테제이다.

## 6. 모든 사회에는, 분리되어 존재하며 서로 동일한 여성들의 하위문화가 있다.

이 하위문화의 뚜렷한 구성요소들은 보통 가사노동이나 자립적 삶을 위한 농사일 같은 부양활동이나 인간들 사이의 관계 즉 양육, 공감, 연대 같은 활동에 중심을 두게 된다. (일부 여성주의 이론에서는 영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현재의 지배문화 내에서 여성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남성문화의 구성요소들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알다시피 일부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떠난다. 즉, 여성들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길 (가능하다면 일자리도 구하길) 택하는 것이다. 여성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간혹 여성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가진 억압적 특성들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 사회의 여가장제 이론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모든 정치이론과 마찬가지로 진본적 여성주의는 어떻게 하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테제가 있다. (내가 쓴 글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만들기’ 에 이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1982년에 발행된 ‘사회적 아나키즘’ 제4호를 보라) 여성주의로 전환하는 문화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7. 변화의 중심은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8. 협동과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안적 사회기구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조직의 양태이다.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는 개인들이 혼자서 노력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상호부조와 협동을 통한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서 변화는 일어난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진본적 여성주의자들과 사회적 아나키스트들은 대안언론집단, 민중의료원, 현장단체, 대안학교, 비영리단체와 지역자치센터 같은 많은 조직과 네트워크를 감동적일 만큼 건설해왔다.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이 만들어온 단체는 보통 아나키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되는데, 페기 코네거가 자

신의 글 ‘아나키즘: 여성주의적 연관성’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보통 본능적인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나키 여성주의자에게 이런 연관성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진본적 여성주의에서 자유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보통 명시적이지 않거나 뚜렷한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어떤 글에서는 일부 아나키스트들이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이라고 불려온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개념은 인간이 물건처럼 취급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 **9.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대한 어떤 강압이나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다.**

진본적 여성주의 이론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럴 경우 자기 이론의 범위를 벗어나 아나키적인 여성주의 이론이 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L. 수전 브라운은 “여성주의를 넘어서: 아나키즘과 인간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누구든 여성주의자인 동시에 권력을 반대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여성주의자가 자신은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권리를 단념하지 않은 채, 권력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지배를 옹호할 수도 있다. 이는 가능한 일이며, 모순 되는 것이 아니다.

강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인간이 권력과 지배 그리고 위계질서가 내면화된 사회에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아나키스트에게 권력은 중점적인 문제다.

### **10. 누구든 다른 인간에게 복종하거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나키스트들은 민족국가를 거부하며, 국가를 부당한 것으로 만들어서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의 관리자들은 합법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합법적 권위에는 권력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할 독점적 권한이 포함된다고 한다.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 즉 여성에 대한 남성의 강제적 지배와 남성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제도화해놓은 것을 끝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에게 국가와 가부장제는 비정상적인 쌍둥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없애는 것은 가부장제를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중요한 동인(動因)을 제거하는 것이다. 가부장제를 없애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가를 폐지하는 것이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진본적 여성주의자들보

다 몇 단계 더 나간다. 국가는 그 정의상 언제나 부당한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은 국가가 지정해놓은 선거구역에 간혀 일하거나 현재의 남성적 국가를 여성적 국가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부 진본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갖는 억압적 특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국가라는 구조 자체가 부정의를 만들어낸다고 응답한다. 아나키즘이야말로 사회가 반복해서 부정의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회 조직화 방식이다.

여러 진본주의자들이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얻었던 교훈이 무엇인지 아나키 여성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다. 즉 위계질서, 권위 그리고 권력구조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새로운 사회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새로운 사회구조는 매우 조심스럽게 건설되어야 하며, 조직들이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돌봐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엘리트들(격식을 차리진 않겠지만 여전히 엘리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에 있어서 항상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자유가 습관이 되도록 배양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일레인 리더는 자신의 글 “어머니들이 길을 열게 하자” 에서 여성 아나키스트들이야말로 남성이 주도했던 아나키즘 사상의 한계를 넓힌 사람들이라고 지적한다. 확실히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차별적인 아나키스트들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수전 브라운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아나키즘과 스스로 모순이 된 덕분이다.” (끝)

\* 이 글의 원문은 1994년 발간된 Social Anarchism지 제19호에 실려 있습니다. 번역 - 조약골

## 반항할 때 행복하다

- 볼리비아의 여성주의 아나키스트 그룹 '무헤레스 크레안도' (Mujeres Creando, 창조하는 여성들)



“우리는 열정으로 미친 사람들, 선동가들, 모반자들, 반항하는 사람들, 체제를 전복하는 자들, 마녀들, 길거리 예술가들, 낙서하는 자들, 아나키스트들, 여성주의자들, 여성 동성애자들, 이성애자들도.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학생이고 사무원이다. 우리는 원주민이고, 소수민족 출신이다. 나이든 사람과 젊은이들도 우리들이다. 우리는 백인이며 유색인이다. 우리는 운동에 대한 헌신성이라는 물레로 연대라는 낱실과 정체성이라는 씨실로 짠 피륙인 것이다. 우리는 여성, 바로 창조하는 여성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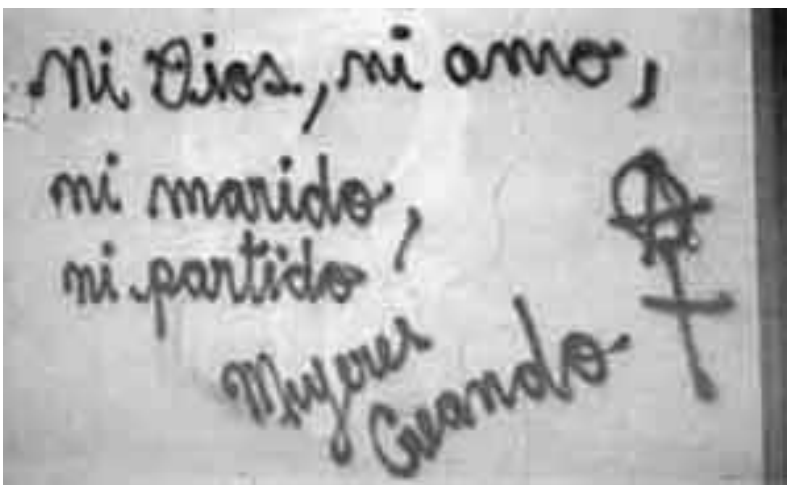
- 무헤레스 크레안도

무헤레스 크레안도는 1992년 볼리비아의 라파스(La Paz)에서 첫발을 내디딘 여성주의 아나키스트 단체이다. 처음엔 세 명의 친구들, 즉 마리아 갈린도Maria Galindo, 훌리에타 파레데스Julieta Paredes 그리고 모니카 멘도사Monica Mendoza가 시작을 했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 좌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원래 좌파 운동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모든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조직되는 방식에 신물이 났고, 좌파 내부의 여성들이 할 일이라곤 단지 차를 타거나

성적인 역할로 제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여성은 비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믿어요. 우리는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무헤레스 크레안도가 정당이나 비정부기구(NGO), 국가, 그리고 패권주의적 단체들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두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이유다. 우리는 또 다른 사장이나 대표자, 급이 높은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조직하며,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대표하지 않는다. 각자의 여성은 스스로를 대변할 뿐이다.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우리의 투쟁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맑스주의 혁명’이나 ‘트로츠키주의 혁명’의 일부분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고유한 특징과 개성을 갖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 단지 여성들에게만, 또는 단지 중산층 여성에게만, 원주민 여성들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두를 향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핵심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무헤르 푸블리카(Mujer Publica, 공공여성)’라는 기관지를 스스로 편집하고 발행하며 판매한다. 또한 거리에서 창조적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우리는 벽화낙서(그래피티, pintada)를 그린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처음엔 현재의 좌파 그리고 보수우익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들이 거리에 ‘이번 선거에서 기호 몇 번을 찍어 달라’는 식의 그림과 구호를 그려 넣은 것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반격을 가한 것이다. 그들은 ‘선거에 반대한다’ 또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에는 반대한다’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는 그런 단어 대신 시와 창의성에 호소하면서 단순히 ‘찬성’ 과 ‘반대’ 또는 ‘좌

파' 와 '우파' 등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생각들을 보여주려 한다. 우리가 그리는 모든 벽화와 낙서들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무헤레스 크레안도' 라는 서명이 여성주의 아나키즘의 표시와 함께 붙어있다.

“우리는 바쿠닌이나 CNT(프랑스의 아나키스트 노동조합총연맹)로 표상되는 아나키스트들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할머니들에게서 배운 아나키즘을 이어간다. 이것이야말로 아나키즘의 아름다운 유파가 아닌가.”

- 훌리에타 파레데스, 무헤레스 크레안도

우리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며 인종차별주의, 독재, 부채문제 등의 모든 억압에 맞서 싸운다. 우리의 목표가 항상 낙태, 월경권, 모성보호와 같은 여성들만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뇨.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낙태나 피임 같은 이슈들에 대해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멋대로 분류하려들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문제들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바로 이 사회의 부분부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벽화 낙서를 그리는 것이다. 우리의 벽화낙서를 보고 화를 내는 남성들도 있고, 정부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벽화낙서들도 있으며,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작품들도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리는 우리 투쟁의 가장 원초적인 공간이다. 우리에게 거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원 같은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자신에게 솔직한 본연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하는 행동이 사람들과 서로 교감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사람들은 우리의 벽화낙서를 읽는다. 그리고 그것이 웃음이나 불편함 또는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람들이 우리보고 유럽은 완전히 끝장났다고들 이야기한다. 나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있는 마리아와 훌리에타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길거리 행진이나 집회를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건 없건 간에 말이다. 이곳 볼리비아에서는 길거리에 나가면 그곳이 민중들 소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행동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한다. 거리는 우리 것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사정은 훨씬 나쁘다. 저들 즉 경찰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국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창의성은 인간적인 것이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창의적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서 이 창의성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창의성은 바로 우리 것인데도 말이다. 그들은 창의성을

엘리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한다. 예술가들이야말로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지껄이면서 말이다. 우리가 가진 투쟁의 중요한 수단을 이대로 빼앗기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인쇄매체들 그리고 길거리 저항행동과 벽화낙서들 속에는 바로 우리의 이 중요한 요소가 녹아들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원초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바로 창의성이다. 누군가는 우리들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네들도 예술가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다. 우리는 거리의 활동가들이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가장 인간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바로 창의성이다.

우리의 활동을 우리는 스스로 ‘악시오네스 카예헤라스(Acciones Callejeras, 길거리 행동)’ 라고 부른다. 하지만 거리에서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여러 공간에서도 우리는 개입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 금융기관장들의 회의장에서 저지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곳은 은행소유주들의 회담이 열리던 곳이었다. 우리들 중 한 명은 치마를 입고 가발과 두꺼운 안경을 썼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얻은 초대장을 들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반인들의 출입은 제한된 곳이었다. 그들은 점심으로 진수성찬과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무헤레스 크레안도의 활동가 한 명이 들어간 것은 그때였다. 그는 전단지를 살포하면서 은행의 높은 이자율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은행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가져간 전단지를 뿌렸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행동 역시 우리들 나름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실리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를 반대하는 행동을 벌인 적도 있다. 신문에 이들 대기업의 광고가 실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상세한 내용을 알린다. 그리고 나서 시애틀과 프라하에서 벌어졌던 반세계화 운동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해방이란 여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이 명쾌한 주장과 행동을 갈망할 때 모든 것은 반드시 가장 완전하고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모든 인공적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하고, 보다 큰 자유로 이르는 길에 있어서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어져온 복종과 노예제도의 모든 자취는 사라져야 한다.”

- 엠마 골드만, 저주받은 아나키즘

은행자본의 횡포에 맞서 최근에 우리가 조직한 반대행동은 매우 강력했다. 볼리비아에는 여성들에게 먼저, 그리고 물론 남성들과 농민들에게도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소액대출제도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빈곤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직업고용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도 없죠. 빈민에게 건강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민에게 소액의 금액을 대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일단 무언가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은행자본가들은 이렇게 대출한 소액에 엄청난 이자율을 물린다. 그렇게 번 돈을 갖고 새로운 투자에 이용하는 것이다.

볼리비아에는 1992년에 소액대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던 여성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자본금을 약간 대출해드릴게요. 아주머니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고는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에 필요한 담보는 개인재산이 아니었다. 이들은 가난했기에 집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단체가 나서서 회원들끼리 서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그 결과 은행은 대출을 했고, 시간이 얼마 흐른 뒤 소액대출제도의 위기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이다. 이자율은 너무 높았고, 여성들은 같은 단체 회원인 다른 여성들과 언쟁을 벌였다.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를 비난했던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자율은 터무니없이 높았다. 처음 100 달러를 대출받았는데, 나중에 가면 빚이 5,000 달러에 달했다. 빈민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8년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갔지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빈곤은 전보다 더욱 심화됐다. 여성들은 소액대출제도가 도입되기 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다.

2001년 대부분 가장 빈곤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로 구성된 한 단체가 수도 라파스에 올라와 향의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데우도라(Deudora, 채무자)’였다. 우리는 이들과 연대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들과 평화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은행과 초고이자율 그리고 돈에 맞선 창의적 행동들을 벌여나갔다. 길거리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우리는 페인트를 가져왔고, 데우도라 회원들은 각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페인트 통에 발을 담갔다.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벽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다. 이들이 수도 라파스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여정을 표현한 것이었다. 우리는 행진을 했고, 경찰이 탄압을 하면 길바닥으로 피하기도 했다. 그렇게 싸웠다.

“정당이나 조직된 단체들만이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행위와 결정에 대해 자각하는 순간 정치적 행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것은 직관에 따른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과 서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적 능력과 힘 그리고 약점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유를 발견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간다.”

- 무헤레스 크레안도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평화롭게 투쟁하는 전략에 호소한다. 하지만 상대로 하여금 폭력을 일으키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 통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대응을 한다는 것은 보통 경찰폭력을 당한다는 뜻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반이 지난 뒤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거대 은행 및 금융사들과 자리를 마주하고 앉아서 협상을 했다. 우리는 갖가지 불만과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제기했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은행은 약간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약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들이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자본주의에 통쾌한 한 방 슛을 날린 셈이다.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금융자본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돌보기에 혈안이다. 은행과 뮤추얼 펀드, 비정부기구 등에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국가기구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소액대출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국제세미나를 통해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소액대출제도는 그저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기만 할 뿐이다.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기로 합의한 뒤 우리는 꽃과 빵의 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은 빵을 모두 함께 나눠 먹었다. 이는 빈민들의 오야(olla, 공동으로 사용하는 솥 같은 주방기구)를 상징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끝)

\* 인터뷰 진행 - 캐서린 에인저Katharine Ainger / Notes From Nowhere

\* 무헤레스 크레안도 홈페이지 [www.muherescreando.org](http://www.muherescreando.org)

\* 무헤레스 크레안도에 관해 좀더 알고자 한다면 영어로 된 다음의 책이 있다.

Quiet Rumors ; an Anarcha-Feminist Reader, 다크 스타Dark Star 편집, 2002년 AK Press 출간

\* 이 글의 원문은 Notes from Nowhere가 편집한 책 We Are Everywhere (2003년 Verso 출간)에 실려 있습니다. 번역 - 조약골

#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방법

- 조약골



세상에 n개의 여성주의들이 있듯이 n개의 아나키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여성주의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아나키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아나키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모순 되기도 합니다. 보통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가지들이 갈리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서 집단, 무리, 공동체 또는 사회가 주가 되는가 아니면 개인이 주가 되는가에 따라 여러 개의 아나키즘으로 갈립니다. 이들 중 어떤 것이 아나키즘이고 어떤 것이 아나키즘이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가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라고 생각하고 아나키 실천을 하면서 아나키즘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펼쳐 나간다면 그의 실천이 아나키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그 존재가 어떤 활동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과정은 얼마나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우며 열정적인가 그래서 함께 만들어갈 사회와 그 사회 속에 위치한 개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에 대해 얼마만큼의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살펴보면 실제 공동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어떻게 실천을 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투쟁

을 조직하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거나, 어떤 기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과정에 우리가 이루려는 사회의 맹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고착화된 사람들이 위계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여전히 위계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지향적인 조직이 해방투쟁을 열심히 해서 어떤 사회를 변혁시킨다고 할 때 그 변혁된 사회는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는 매우 군사화되어 있고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국가체제로서 위계질서가 사회의 모든 관계들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계질서는 극소수의 강자와 절대다수의 약자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자신의 위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경쟁을 해서 보다 높은 위치로 오르려는 욕망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체제에서 높은 위치란 돈과 권력이 보장해주는 것이죠. 위계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매우 폭력적인 경쟁을 통해 이윤과 권력을 추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이 군사화된 자본주의 가부장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이 둘 다 모두 능동적이며 해방적인 실천인 이유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또는 새로운 사회를 조직함으로써 기존의 위계질서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변혁입니다.

기존의 여성주의에서는 국가에 대한 치열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나키즘에서는 여성주의가 매우 부족했던 것, 또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아나키즘에서 여성주의가 부족했던 것, 시각을 한국으로 좁혀 보자면 한국의 아나키즘에서 여성주의가 없었던 이유는 한국, 조선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나키스트들 가운데 여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키즘은 철저히 남성들의 담론이었고, 아나키 실천은 남성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아나키스트들이 비주류도 아닌 주류 남성들의 이데올로기였던 유림(儒林)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각한 엘리트들의 계몽적이고 선구자적인, 이른바 지사적인 활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당시의 경향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민족주의가 주류 남성들만의 사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체제란 근대 서구의 산물로서, 애초에 여성은 국가에 포함되지도 못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대국가의 태동에서부터 여성들은 철저히 투쟁을 통해 국민으로 조금씩 편입되어왔습니다. 참정권을 얻은 과정이 그랬습

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헌법상의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벌이는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서구 침략적 제국주의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의 수단이었다고 하지만 그 저항적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해방국가라는 것은 같은 혈통 출신의 비장애인 엘리트 남성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에 불과했습니다. 아나키스트들도 이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남성 엘리트들에 의해 전유되어왔으며,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아나키 실천도 거의 끊어져버리고 교수와 박사 남성들의 연구대상인 초라한 아나키즘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아나키즘이죠. 그리고 여성주의가 부재한 아나키즘은 이렇게 흘러갈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나키즘이 여성주의와 만나야 하는 이유는 가부장제 사회를 바꾸려는 아나키스트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제의 억압을 느끼지 못하는 남성들이 만들어가는 사회는 또다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매우 억압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국가가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국가란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어떤 거대한 공동체로서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보다는 뭔가 거대담론을 추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을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 어울리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국가를 지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굳이 국가라는 것을 붙잡고 씨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훨씬 더 급박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많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모자란데 국가라는 추상적인 것을 갖고 고민할 만큼 우리들이 한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온 사회를 위계적으로 짜놓은 체제입니다.** 미시관계들에 있어서의 위계질서의 총합이 국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강요된 것입니다. 개인들은, 특히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복속을 강요당할 뿐입니다. 국가간 이동의 장벽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국가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데, 문제는 국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위계질서를 심어놓는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준법을 강요합니다. 충성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머리 위에 어떤 존재(지도자, 아버지 또는 사장님, 즉 남성, 또는 남성화된 존재)를 놓아두고 머리를 조아리라고 합니다. 국가체제가 무서운 것은 그런 과정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이런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명령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현 체제의 자체적인 논리(자본주의 국가체제를 영구히 유지하려는 욕망) 때문에 실시간 반복되고 있는 질서입니다. 우리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의는 차별이 없는 관계를 만든다고 할 때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체제를 가만히 놔두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개별 국가기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국가정책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실천을 무시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활동가들이 고민 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여기서 ‘현실주의’ 를 한 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외교와 안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현실주의란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국가체제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정도가 될 듯 합니다. 평화활동가들도 이 현실주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국가의 힘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아예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고,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파병이나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든 인권이든 현실주의적 경향은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주의는 국가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역량에 의지한다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를 국가로 푼다는 것이 현실주의라면 현실주의란 실은 국가현실주의이며,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국가현실보존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가주의에 깊게 몰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반공주의는 그 극악한 형태인데요, 반공주의를 떨쳐버린 많은 사람들도 국가주의를 떨쳐버리는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국가의 바깥에 마치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외부가 없는 완전한 우주일지는 몰라도 국가의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들에게 국가는 억압적인 현실일지언정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라는 철저히 이성애 비장애인 주류 남성 중심의 체제에서 늘상 체제의 주변부로, 때로는 바깥으로 쫓겨나는 사회적 약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n개의 여성주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n개의 답이 있다고 해야겠군요.

국가란 약자들에 대해 배제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소수 강자들의 주도권을 유지시키는 체제라고 한다면 그 바깥으로 나가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주의의 달콤한 떡고물(현실주의 입장을 채택한 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단지 떡)을 과감히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국가 바깥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비로소 주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본다는 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새로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체가 여성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게 여성주의와 아나키즘이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끝)

# 아나키즘과 청소년 해방

- 마크 시버스타인 Marc Siverstein



오늘날의 사회에서 아동은 독특한 방식으로 억압되어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억압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진본적(급진적이고 발본적, radical)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잘 모르기 일쑤다. 불평등과 강요에 기반해 아동과 성인의 관계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보통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사회적 억압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는 아동에 대한 차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아동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인이 아동에 대해 어떤 형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다. 개인의 주권과 강요하지 않음, 그리고 자유연합과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아나키즘의 사상은 부모역할론, 교육일반론 그리고 아동육성론 등에서 비권위적 이론을 공식화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억압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아동들이 해방을 시작하는데 아나키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권위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부모는 아동이 태어난 날로부터 만 18세 또는 19세에 이를 때까지 법적으로 정당화된 보호권을 갖는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관계를 맺는다. 부모는 아동을 소유물로 바라보는데, 그래서 아동은 양육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걱정선을 지켜야 하고, 통제되어야 하며, 규율을 배워야 하고, 선행을 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는 체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아동에 대한 이런 식의 개념에 반대한다.

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로 바라볼 뿐, 아동 역시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미하일 바쿠닌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리한다.

**“아동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며, 심지어 사회에 소속된 사회적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그저 자신의 미래에 소속될 뿐이다.”**

일부 부모들은 핵가족 하에서의 숨 막히는 분위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자식을 과도하게 보호한다’거나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한다. 성별화된 질서가 생성되고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핵가족 제도다. 권위적인 이데올로기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핵가족 제도를 통해서다. 핵가족 하에서 성(性)에 대해 금욕적으로 억압한 결과 아동들에게서 신경증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적 특성이 생겨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신이 가진 특정 종교(유대교, 기독교 등)나 정치적 입장(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가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등)을 자식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한다. 유대교 가정에서는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유대교 성인식인 ‘바 미츠바(Bar Mitzvah)’라는 것을 열어야 한다고 은근히 압박하거나 또는 대놓고 강요하기도 한다. 이는 ‘남자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표시다. 하누카, 크리스마스 등은 아동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교적 잔치다. 자신 스스로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갖도록 하는 기회를 아동은 부여받지 못한다.

아이가 5살 무렵이 되면 학교에 보내지는데, 이곳은 아나키스트 밥 블랙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아동수용소’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기관에서 아동은 교사에 의해 주의 깊게 감시를 당한다. 교사는 아동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해야 한다. 학교의 목적은 아동이 어떤 식으로든 자유로운 생각이나 개인성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은근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것을 꺾어놓는 것이다. 아동이 ‘체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학생주임에게 보낸다거나, 교무실에 가둬놓는다거나, 정확시킨다거나,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또는 낮은 성적을 주는 등의 체벌을 가한다. 사립학교 대부분에서 그리고 많은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복장과 두발의 규정이 가해진다. 웃웃은 반드시 가지런히 바지에 넣어야 한다거나 허리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는 식의 조항까지 있을 정도다.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염색하거나 귀걸이나 피어싱을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주임이나 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호통을 치고 이를 금지시킨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노동자와 사장의 관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장은 회사를 소유하고, ‘행동 규정’을 마련하며,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위자



에게 의문을 품고 반문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학생들의 분노는 학생자치기구나 학교가 인정하는 학생회 등을 통해 조절된다. 이는 거대한 노동조합총연맹(미국의 경우 AFL-CIO 같은 단체)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조절되는 것과 유사하다. 학생자치기구가 사소한 개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나키즘이 요구하는 것처럼 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강요와 폭력의 철폐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가 감옥과 얼마나 많은 점에서 닮아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다. 감옥과 학교 모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된다. 권위적인 구조, 복장과 두발 규정,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정숙과 질서에 대한 강조, 금지규정을 지키기 위한 단속, 행동에 대한 규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보상제도, 개인 자율성에 대한 상실, 자유에 대한 억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등.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온다.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작업장—학생들은 패스트푸드 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착취를 경험한다—에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자신이 부모와 성인들로부터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이 부당하지는 않은지 이야기해보자. 계급에 대한 자각은 필수적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신이 하나의 독특한 계급으로서 억압을 받는다는 계급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억압하는 계급은 삶의 조건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 아나키스트들의 국제노동조직인 '세계산업노동자회(IWW,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의 규약 서문을 알기 쉽게 바꿔서 말해보면, 억압하는 계급과 억압받는 계급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조그만 방식으로 불복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거나, 학교가 강요하는 종교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또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할 때, 과제의 주제로 청소년 운동의 역사 또는 엠마 골드만이나, 학교에서 아나키스트 동아리를 만들고 반전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한 15살 학생 케이티 시에라 Katie Sierra 등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해보자. 이는 노동자들의 작업거부나 태업과 비슷한 방식의 불복종이다. 학교 바깥에서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등 스스로를 교육시켜보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학교에 붙일 수도 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소책자나 잡지를 만들어 학교에 돌릴 수도 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 동맹휴학 또는 '길거리를 되찾자' 등의 방식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엽적일 수도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두발 규제 등을 다

를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더욱 진본적이 되어 문제의 뿌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의 한 아나키스트 동아리는 근처 개훈련장에 붙어 있던 ‘복종을 가르칩니다’ 라는 문구를 떼어내 한 고등학교에 펠럭이도록 붙여놓았다.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예전에는 별로 저항을 받지 않고도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는 학생들로부터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신들이 학생을 감시하고 통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그런 권력이 도전을 받으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학생은 전처럼 형태가 없는 한 무리의 온순한 양떼가 아니라 계급의식을 갖고 지성을 갖춘 젊은 청소년들로 조직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을 영원히 없애나갈 것이다.

아나키즘은 청소년 해방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강요와 폭력에 반대하는 아나키즘의 기본 원칙은 청소년이 처해 있는 노예와도 같은 속박상태에서 청소년이 자유로워지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해방에 있어서 아나키즘은 부모의 강요를 제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는 통찰을 제공한다. 즉 청소년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을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이중권력 전략’의 좋은 예이다. 새로운 사회는 낡은 사회의 껍질을 벗고서 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

\* 이 글의 원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번역 - 조약골



여성주의 아니키즘  
피자매연대 작은책 시리즈 04

번역, 편집: 조약골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19번지 1층 해방촌 빈가게  
전화 02-6406-0040  
전자우편 [dopehead.zo@gmail.com](mailto:dopehead.zo@gmail.com)

가격 3,000원